

전남도 수산가공품 소비·수출 확대 총력

유통·가공 기반 구축 820억 투입
김 수출시장 경쟁력 강화 110억 지원
천일염 저장시설·종합유통센터 건립
230억원 들여 수산시장 시설 개선

전남도가 최근 수산가공품 소비와 수출 증가에 따라 수산 유통·가공 기반 구축 사업비로 820억원 확보하고 본격적인 사업 지원에 나선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수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개발과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천일염 종합유통센터 건립, 김 수출 3억 달러 달성을 위한 기반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김 신제품 개발과 품질·위생 관리로 수출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110억원을 지원한다. 사업비는 김 품질관리제 도입, 수출용 마른 김 시범 검

시장 구축, 수출 신제품 개발 기업 연구개발(R&D) 지원, 김 품질 관리 및 위생 장비 보급 등에 투입, 김 수출 3억 달러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또 수산물의 수출 전략 품목 육성을 위해 30억원 투입한다. 연구개발시설과 국제수산물거래소, 냉동보관시설, 수출기업 지원시설 등을 갖춘 수산식품 수출단지 시설설계와 함께 수출형 수산신제품 개발, 품질관리 기술개발, 수산식품 수출기업 육성 및 통합 마케팅 등이 진행된다.
고부가가치 건강기능성 수산식품 개발을 위해 250억원을 지원한다. 해조류 바이오 활성소재 생산시설 구축을 비롯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조류 고차 가공시설 및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건립, 해조류 코로나19 억제 효능 검증 연구 등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위생적이고 신속한 수산물 공급체계를 위해 수산물 유통물류센터와 청정 위판장, 로컬푸드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건립, 수산물 저온 저장시설, 수산시장 시설 개선 등에 230억원을 투

입한다. 수산물 수급 조절과 유통·공급 체계가 개선될 전망이다.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천일염을 공급하기 위해 염전 바닥 개선과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천일염 종합유통센터 건립, 산지 종합처리장 설비 지원 등에 185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위생적인 수산기반 구축은 물론 수급 조절 역량 강화가 기대된다. 이밖에 전남 수산물의 다양한 홍보와 판촉활동으로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한 사업비 15억원도 마련됐다. 수산물 할인 지원과 대형 유통기업 대상 수산물 입점 지원, 수산물 드라이브스루 등 사업을 펼친다.
위광환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코로나19로 가정 간편식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고, 조미김·어묵·김스낵 등 수산가공품의 소비, 수출도 늘고 있다"며 "전남 양식수산물에 이용한 가정 간편식과 김 신제품을 개발하고 김 품질 관리 및 위생 장비 보급 등을 통해 수산물 수출 시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레이저산업 기업 광융합 기술정보 제공·장비공동활용 전남테크노파크, 광주과학기술원과 업무협약

(재)전남테크노파크(원장 유동국) 레이저시스템산업지원센터는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소(소장 이영락)와 최근 전남지역 레이저산업 관련 기업의 광융합산업 기술정보 제공 및 장비공동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전남테크노파크 레이저시스템산업지원센터와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소는 광융합기술 정보 및 구축장비 공동 활용, 보유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술지식 평가정

보 공유, 공동연구과제 도출을 위한 협력관계 유지, 전남테크노파크 회원기업의 기술정보 활용 지원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유동국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은 "산학연 협력 생태계 조성을 통해 국가 광융합산업을 선도하는 핵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류해 전남을 비롯한 전국 레이저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중국발 불청객' 팽생이모자반 수거·처리 구슬땀

전남지역 해안 7000여t 유입
전남도, 시·군 유관기관 총력 대응



전남도는 팽생이모자반(사진) 유입에 따른 양식장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긴급 수거·처리 및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최근 도내 해역으로 유입 중인 팽생이모자반은 중국에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바다의 불청객인 팽생이모자반은 대규모 띠 형태로 이동해 연안 경관을 해칠뿐만 아니라 선박 안전사고와 수산양식 시설 훼손, 양식생물 폐사 등 2차 피해를 내고 있다.
특히 올해 잦은 북서풍, 북극한파 등의 영향으로 신안군과 진도군, 해남군 연안에 팽생이모자반이 7000여t 규모로 대량 유입됐다. 수온이 영상 20도 이상 도달해야 자연 소멸하는 특성에 따라 6월 중순까지 국내 해역으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해상에 부유한 팽생이모자반을 해양환경공단과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청항선, 어항관리선을 투입해 수거하고, 해안가에 밀려온 팽생이모자반은 시·군 공무원, 주민 등을 동원해 신속하게 수거하고 있다. 또 국

립수산과학원, 도 해양수산과학원, 해경 등으로부터 확인된 예찰결과를 해당 시·군과 어업인에게 신속 전파하고 있다. 특히 팽생이모자반 일시 유입에 따라 수거·처리에 어려움을 겪은 신안군에는 예비비 10억원을 긴급 지원하고, 중앙부처에 국비 지원을 지속 건의하는 등 신속한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위광환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유관기관과 함께 팽생이모자반을 신속히 수거·처리해 해양환경과 수산양식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해당지역 어업인도 예찰 및 수거작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올 환경친화형 축산 2200억원 투입

전남도는 환경친화형 축산 육성을 위해 국비 411억원을 포함 총 22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환경친화형 축산기반 확대,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조사료 생산 및 명품한우 육성, 미래성장산업 육성 등 4대 전략과제의 42개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 친화형 축산기반 확대를 위해서 8개 사업에 798억원이 지원된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432억원, 녹색축산육성기금 200억원, 스마트 축산 농장 확대를 위한 축산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사업 100억원 등이 투입된다.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에는 가축분뇨처리 지원 129억원, 양돈 생산성 향상 지원 12억원,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 60억원 등 6개 사업에 230억원을 배정했다. 특히 중·소규모 축산농가의 분뇨처리를 위한 가축분뇨 친환경 공동발효센터 설치 20억원과 퇴비 부숙축진지원 사업비 15억원 등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해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될 퇴비 부숙도 의무화에도 대비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도 어선 안정장비 지원 품목 대폭 확대

전라남도가 어업인 생명보호를 위해 전기, 구명, 소방, 항해 및 무선설비 등 어선 안전장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어선 안전사고 예방에 나섰다.
전남도는 16일 "연안에서 조업중인 10t 미만 소형어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의 지원 품목을 기존 4개 품목에서 150여 품목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남지역에 등록된 어선 2만7413척 중 10t 미만 소형어선은 2만6420척으로 96%를 차지해 이에 대한 안전관리가 절실하다. 전남도는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지난해 초단파무선전화(VHF-DSC)와 자동소화시스템, 구명조끼, 선박자동침몰방지장치(V-Pass)만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는 축전지, 역전류 방지장치, 각종 계기류 등 전기를 비롯해 구명부환·사다리 등 구명, 고정·이동·휴대·투척식 등 소화기 등 소방, 레이다반사기·항해용레이더·위성항법장치·기적 등 항해, 무선설비와 같이 '어선설비기준'에 있는 150여 품목 모두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해상 추락 시 체온유지 및 그물 걸림 등의 착용성이 개선된 '어선용 구명'은 어업인이 약 6만원만 부담하면 되고, 적당 승선인원수 만큼 지원 받을 수 있다. 총사업비는 10억원이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40%만 어업인이 부담하면 된다. 지원을 바라는 어업인은 12개 시·군 해양수산담당 부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도, 221억원 들여 숲속 '산림휴양치유' 기반 구축

전남도는 코로나19로 피로도가 높은 도민들에게 숲속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산림휴양치유 시설 기반구축에 221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도민들의 다양한 산림휴양치유 수요에 대응해 신규시설 조성 7개소, 기존시설 리모델링 21개소 등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전남도가 유치한 전국 최초 의료연계형 국립회춘치유의숲은 화순 만연산 일원 7.8ha에 국비 75억원을 투입해 올해말 완공 목표로 조성 중이다. 국립회춘치유의숲은 산림치유센터와 의료연계

장비, 치유정원, 숲속공방 등을 갖춰 차별화된 의료연계형 산림치유의 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가 도민들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성·운영중인 산림휴양치유시설은 자연휴양림 16개소, 치유의 숲 9개소, 산림욕장 31개소, 숲속야영장 6개소 등 총 62개소다. 특히 지난 2018년부터 조성해온 해남 흑석산 치유의숲, 완도 약산 치유의숲, 무안 물맞이 치유의숲은 올해 상반기 조성, 하반기 개장을 목표로 손질및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장/단기, 최고 투자처

양도자 「자금사정」으로 급매각합니다

■ 콘도회원권 매각내용					(단위: 만원)				
콘도명	사용 체인	면적	최종 분양가	매각 금액	콘도명	사용 체인	면적	최종 분양가	매각 금액
대명 리조트	설악, 홍천스키장, 양평, 삼척, 양양, 천안, 고양, 단양, 제주, 경주, 청송, 거제, 부산, 여수, 진도	패밀리형 방1개	2,530	1,780	리솜 리조트	제천 포레스트 덕산 스피러스 안면도 아일랜드 제주 퍼스픽	실버(24)방1	2,850	1,680
		스위트형 방2개	3,600	2,680			골드(28)방2	3,210	1,980
	디럭스형 기명(방2개)	2,480	1,680	로얄(34)방3			4,890	3,480	
한화 리조트	설악, 용인, 양평, 평창스키장, 해운대, 경주, 백암, 지리산, 대전, 수안보, 제주, 산정호수, 거제	디럭스형 기명(방2개)	2,480	1,680	켄싱턴 리조트	설악밸리, 설악비치, 가평, 포천스키장, 충주돈산, 수안보,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경주, 남원, 하동, 해운대, 도고	패밀리B(21)방1	1,980	980
		디럭스형 무기명(방2개)	3,110	1,880			스위트A(26)방2	2,120	1,280
							스위트B(31)방2	2,600	1,380
					로얄(35)방3	3,200	2,200		

20년 전통 콘도전문업체
동양회원권거래소

전화 (053)951-3080
팩스 (053)944-3080